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2, 2014 Vol. 453

“교회 오실래요” 한 마디면 교회 갈텐데

백 투 처치 선데이에 2만7천 교회 참여

미국에서 예배 참석률을 높리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내셔널 백 투 처치 선데이(National Back to Church Sunday)' 캠페인에 올해는 2만7천여 교회가 참여했다.

'내셔널 백 투 처치 선데이'는 교인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구, 이웃을 주일예배로 초청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감소세에 있는 미국 교회의 예배 참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9년 이래로 매년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어 왔다. 캠페인의 창안자인 스콧 에반스 목사(아워리치 인터내셔널 설립자)는 "이 운동은 600여 개 교회만의 참여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 운동을 통해 많은 교인들이 더욱 쉽게 지인들을 예배에 초청할 수 있게 되면서 이처럼 성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반스 목사는 이 캠페인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 중 다수가 예배 초청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문 조사 결과에 착안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당시 미국 기독

교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82%는 누군가가 예배에 초청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으나, 교인들의 2%만이 1년에 한 명을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이 같은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만들어진 것이 '내셔널 백 투 처치 선데이' 캠페인이다.

에반스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지인을 예배에 초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행사를 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 캠페인은 교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목회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에반스 목사는 한편, '내셔널 백 투 처치 선데이'의 효과는 단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교회들의 평상시 예배 인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현정 기자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환영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17가정, 25명이 나성순복음교회의 <선교사 가족 초청대회>에 참석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여의도순복음교회 아프리카 총회(회장 정병성 선교사) 소속 선교사들로 코트디부아르, 케냐, 탄자니아, 가나, 우간다, 남아공, 르완다의 오지에서 원주민 선교 중이다.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에서 선교사들은 영적 재충전은 물론, LA 관광, 청조과학 탐사여행 등으로 미국을 체험한다. 특히 교회의 각 구역과 선교사가 결연해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도전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한편, 나성순복음교회는 "기든지, 보내든지, 돋든지"라는 슬로건 아래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며 이 행사를 준비해 왔다.

다민족연합기도회 “주여!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다민족기도회 LA 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회를 앞두고 한인교회들의 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7월 1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첫 기도모임을 한 이래, 사우스베이,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거쳐 10월 1일 LA 지역에서도 기도회 및 설명회가 열렸다.

이 다민족기도회는 11월 11일 아너하임의 혼다센터(Honda Center)에서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뤄지는 기도회 중 황금시간대라 할 수 있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한인교회가 인도하는 특별기도시간으로 배정됐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 <A Line in the Sand>는 2011년 11월 11일 로즈볼에서 다민족기도회를 개최했으며 3만5천여 명이 참석해 대부흥을 간구한 바 있다. 당시 한인교회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넘는 1만2천명이 참석했고 특별

히 한국식 통성기도와 주여 삼창을 통해 미국 주류교계에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주최측의 대표 데이비드 안드레이드 목사는 "한인들은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은 위기의 때다. 기도해야 한다. 역대 7장 14절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고 이 땅을 고친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한인들이 미국 주류사회 및 다민족사회와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 도 인상적이지만 한인교계 안에서의 연합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기도회에는 남가주교협, OC교협,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CCC, 남가주청년사역자연합, 미기총, JAMA 등이 동참하며 각 지역 교협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인들은 지역별로 중보기도회를 열 뿐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모든 교회들이 행사를 영적으로 준비하며 10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루를 정해 연쇄금식기도회를 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동성결혼 주례 거부하면 감옥행” 대책은?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에서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목회자 법률 세미나가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베들레헴교회(1128 S. Crenshaw Blvd. Los Angeles CA90019)에서 열린다.

지난 1회 세미나에서는 종교 부지 사용 문제와 목회자 상담 내용에 관한 법정 증언 문제를 다루었고 이번 제2회에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를 이슈로 다룬다.

태평양법률협회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거나 교회 대여를 요청할 시 목회자가 이를 거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유치장에 수감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또 무신론자들이 교회의 비영리 단체 면세 혜택 박탈을 시도하는 일, 교회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청소년 사역 담당자로 고용해야 하는 일 등에 대한 해법도 나누게 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태평양법률협회의 대표인 브래드 다크스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강의를 전하고 질문과 답을 교환하게 된다. 등록비는 없다.

문의) 주성철 목사(714-640-7471)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 \$40~\$175

- 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 단체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이상훈 목사의 터키 선교여행 일기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나타난 거대한 산성 도시 마르딘. 아타톨리아의 끝자락에 있는 고대 도시.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땅입니다. 해발 1000 미터의 거대한 하나의 산을 향해 들어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큰 산 전체가 하나의 도시로 덮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산을 덮고 있는 시가지가 구 마르딘이며, 지금 그 산을 넘어 남쪽 산 밑으로 신 마르딘,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가 높이 솟은 빌딩과 아파트와 함께 펼쳐집니다. 구 마르딘은 수천년 세월 동안 고대종교로부터 고대 수리아정교회, 알미나이정교회,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들의 본부 역할을 해 온 말그대로 종교 도시였고, 온 건물이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고대 도시 분위기였습니다.

가난한 서민들과 빈곤층은 구 마르딘에 살고, 중산층과 부유층들은 신 마르딘에 거처를 잡고 있어 마치 마르딘은 한 옷을 새 옷으로 갈아 입고 있는 거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평신도 선교사인 엔델 패커는 쿠르드 민족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오늘 저녁 여러 손님이 오시게 되어 같이 시간을 보내자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내와 5살, 3살, 2살 짜리 인형같이 예쁜 세 딸이 있는 매우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온 손님들은 그와 같이 동역하는 독일인 선교사 말크스, 서부 코사다스에서 온 독일인 선교사 안드레아와 루돌프, 그리고 독일교회에서 대표로 온 발드마와 루디라고 하는 집사들이었습니다.

엔델 패커 선교사의 소개로 서로 인사를 한 후 이슬람식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그들은 본격적인 대화를 가했습니다. 독일어와 터키어가 섞여서 오가는 대화를 듣는 중에 안드레아 선교사가 제 곁으로 일부러 와서 영어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



이상훈 목사
성광장로교회 담임

역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교회연합에서 두 대표를 보내 터키에 국경 지역으로 솟아져 들어오는 수 만명의 시리아 난민들

을 구제할 방안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독일 대표들은 시리아 난민들의 자존심을 배려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1차 예산은 수만 달러. 난민 구제 사업이 성공이라 판단되면 이어서 2차, 3차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그 일을 두 대표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두 대표는 사역지에서 독일교회가 믿고 선교비를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사역자를 찾는 중에 마르딘의 엔델 선교사와 말크스 선교사를 추천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 시간 그들은 대화했고 이제 시간이 깊어져서 두 대표는 이 일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독일교회 대표 중 한 분이 엔델 패커에게 이곳에 선교사로 오기까지 신양간증을 해 달라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엔델 패커는 자기를 은은한 미소로 바라보는 아내를 보며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터키에서 태어났지만 쿠르드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것. 쿠르드는 터키에게서 독립하길 원하는 민족입니다. 그는 쿠르드 독립을 위한 약명높은 테러단체인 패케케에 가입하여 1년 여 간 군사 훈련과 폭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부의 지령에 따라 어디든지 가서 폭탄을 몸에 두르고 자살 테러를 한 후 알라의 품에 안기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우연히 성경책을 접

하게 되었고 테러 훈련을 받는 중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매우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분이란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예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합니다. 그러던 중 패케케에 대하여 점점 회의가 들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야간에 목숨을 걸고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하자마자 이라크군에게 잡혔는데 국적이 터키인이라 터키군에 인계되었고, 터키 법정에서 패케케 훈련을 받았다는 죄목으로 15년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1년 6개월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은 되었지만 자신에겐 이미 청춘을 바쳤던 꿈이 산산조각 난 상태로,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져 고향인 디아르바크르 성벽 위에 올라가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저만치에 빨간 십자가 싸인 불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예전에 성경책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곳을 찾았는데 거기로 바로 수리아정교회였습니다.

그는 그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더 알고자 애쓰다가 하나님 인도로 지금 자기를 파송한 디아르바크르개신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었던 때가 2007년 4월경. 그때 그는 멀리 떨어진 말라티아에서 기독교인 3명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교자 중에 두 분은 목사님이셨지만 한분은 평신도인 우르라고 하는 터키인 형제임을 알고 자신이 그 우르 형제의 믿음을 계승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다

음 주에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4년 여 간 교회에서 신양훈련을 받은 후 이 곳에 파송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의 음성과 자세, 그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 그때 받았던 엄청난 은혜를 이 글로 표현해 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의 간증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간증을 마치자 마자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들의 임무를 엔델 패커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때까지 그들 곁에서 계속 듣고 있던 우리 피터 김 목사에게 기도회 인도를 청했습니다. 피터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성령이 뜨거운 은총을 모두의 가슴에 폭포 수처럼 부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 모두는 그들이 도우려고 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우거하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이곳 저곳 산재하여 도시 속의 폐허 가옥들 속에, 개천 밑에, 외진 수풀 속에, 식수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하루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들의 눈빛은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정부 군 폭탄에 죽임을 당하였고, 가족 중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즐비했

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디서부터 손을 펼쳐야 할지 너무 비참해서,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상태로 줄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들을 둘러보고 난민촌을 떠나 오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을 놓아두고 가는 것 자체가 큰 죄짓는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우리는 공항을 향했습니다. 공항 가는 내내 차 안은 정적이 흘렀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는 공통의 생각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항에 내려 서로 인사하기 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뻗 둘러서서 합심하여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서로를 쭉쭉하며 천국에서 보자 하며 헤어졌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향해 독일인 말크스 선교사가 “어제 당신들이 우리 대화 가운데 있어 주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다”고 말하며, 꼭 다시 한번 오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피터 목사와 나는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서로 바라보며 침묵의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순례길에 동행해 주신 성령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끝>



새 빛 한 의 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W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옮겨 짚을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최신인 다 들판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리 정



P-H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DKHIS.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케다케어 건강보험** 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213-500-4563
ID:DKHEALTH

P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 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케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비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겠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치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베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어몬드 바이오스가 있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0146629



남가주 지역 KCCC 사역자와 청년·EM 사역자들이 Higher Calling 준비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인 2세 청년들 “더 높은 부르심” 향해

KCCC, 올해 말 Higher Calling 컨퍼런스 The Light 주제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따라 빛으로 살아갈 청년들을 세우려 합니다.”

KCCC가 매년 개최하는 컨퍼런스 “Higher Calling(더 높은 부르심)”이 올해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샌디에고 타운앤컨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해에는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선교로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헌신을 다짐했다.

올해의 주제는 “The Light”다. LA KCCC 대표 이영복 목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청년 대학생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샘 고 목사는 “한인들의

세대 간 아픔을 끌어 안으며 회개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집회에 참석했던 이예찬 학생은 “작하게 살았지만 인생의 목적이 없던 저에게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선교적 신앙, 타인을 품는 마음’을 준 집회였다”라고 회고했다.

이 컨퍼런스의 특징은 1세와 2세 목회를 모두 경험한 박형은 목사, 한인이면서 미국인 다민족을 목회하는 유진 조 목사, 미국 청소년 사역자 그렉 스티어 목사, 미주 KCCC 대표 김동환 목사 등 쟁쟁한 강사진 외에도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사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 모든 집회 후 이뤄지는 소그룹 모임이 더 큰 강점이다. 이 모임에서 많은 불신자 청년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도 KCCC는 소그룹 리더들이 회의와 훈련, 기도로 준비 중이다. 컨퍼런스가 컨퍼런스로만 끝나지 않도록 적극 선교 현신자들을 발굴해 지난해 집회 후에는 미주 5개 지역에서 750여 청년들이 단기선교에 헌신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한편, 이 집회는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토큰토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 문의) 213-389-5222 김준형 기자

임마누엘장학회 제4회 창립기념예배와 장학금 수여식

6개 신학대 학생 28명에게 총 1만3천불 수여

사단법인 임마누엘장학회(회장 장철의)가 창립 4주년을 맞아 9월 30일 오후 4시 월드미션대학 대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제5회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다.

임마누엘장학회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학생들에게 학비의 일부를 보조해 미래의 유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려는 동기로 2010년 출범했다.

첫 해인 2010년 에반젤뉴욕신학대학교와 멕시코성결신학교의 신학생 40명에게 총 7천불의 장학금을 수여했고 2011년에는 베데스다대

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 신학생 52명에게 총 1만1천불을 수여했다. 다음해인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만5천불과 1만2천5백불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총 161명이 4만5천5백불의 장학 혜택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1부 4주년 기념축하 예배와 2부 장학금 수여식으로 진행됐으며 두 순서 모두 조성현 선교사가 사회를 맡았다. 김효인 교수(베데스다대 학생처장)가 대표기도를 한 후 월드미션대학의 김미진 학생이 특송을 불렀다.

설교한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총장)는 “여러분이 받은 장학금은 정성, 사랑, 눈물로 주어진 것이니 이 빛을 갚아야 한다. 목회가 본 궤도에 오르면 여러분도 후배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여건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전심전력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도 증거를 받는 장학금 수여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뉴욕 신학대, 베데스다대, 월드미션대, 에반겔리아대, 미주장로회신학대, 멕시코성결신학교에 재학 중인 신학생 28명에게 총 1만3천불이 지급됐

미주성결대 ATS 가입 기념

감사예배와 후원의 밤



다”면서 “본교의 사명이자 설립비전인 세계 선교의 일꾼을 양성하여 선교사, 목회자, 상담가, 채플린, 간호사 등 전문사역자를 파송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의 밤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교수진 임용, 실습실 등의 최신시설 설비, 실습용품과 도서 및 관련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후원의 밤 행사는 12일(주일) 오후 4시, 미주성결대학교(1818 S. Western Ave, 2nd Fl. Los Angeles, CA 90006)에서 열리며 유석성 서울신대 총장이 메시지를 전한다.

김나래 기자

이지선 작가, 임은주 선교사가 함께하는 경건회

“경건과 학문”을 지향하는 미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10월 경건회를 마련했다.

특별순서로 마련된 이번 경건회에는 나성영락교회에서 파송된 임은주 선교사와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인 이지선 작가가 함께 참

석해 “메콩강 유역 위기의 어린이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시연한다. 경건회는 본교 채플실(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에서 10월 20일(월),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2시 30분 까지 약 50분에 걸쳐 진행된다. 문의) 562-926-1023



임마누엘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송정명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으며 멕시코성결신학교 조성출 총장, 베데스다대 김효인 교수, 미주 한인서예협회 유병희 이사장, 에반겔리아대 신현국 총장 등이 참석했다.

장철의 목사는 이 장학회가 지나

온 발자취를 되짚으며 “가난으로 고민하는 신학생들에게 작은 버팀목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자들의 믿음과 성원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주디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풀리한마트: 1701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3 T.323.737.8888 (네일아트·미용·화장품)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페미트과 쇼설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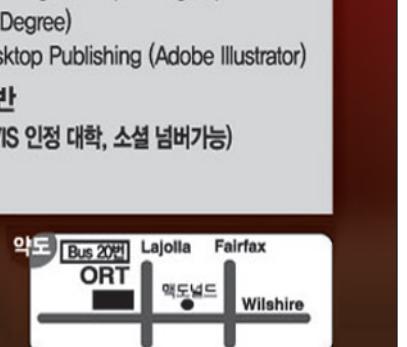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미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 가능)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 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정찬용 변호사 인터뷰]

이성과 합리의 세계에서 크리스천 변호사로 살아가기

“미국 법에서 기독교가 설 자리 갈수록 줄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부분이 법과 연결돼 있다. 미국법이 가는 방향이나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정찬용 변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글렌데일 소녀상에 관한 소송 이야기를 꺼냈다.

소녀상은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시블리(Sibley)라는 법률단체가 있다. 거기서 프로 보노(Pro Bono,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글렌데일 소녀상에 관한 소송을 무료로 담당했다. 일본인들이 글렌데일 도서관에 건립된 소녀상이 반일본적이이며,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이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철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이 소녀상이 미국 외교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은 언론 표현의 자유가 있다. 시 정부가 아니라 개인조차도 얼마든지 외교, 정치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녀상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게 전혀 아닌 이유는 전쟁 피해자,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LA시에도 헐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 그것을 독일에 반하는 외교적 활동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글렌데일에선 연방하원에서 상정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외교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30만불을 모금해 연방대법원에 상정되는 데 걸리는 4~5년을 위한 준비를 했다. 한인사회에서도 모금 활동이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크리스천으로서 “두 세상을 웠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지만 글렌데일 소녀상 사건 같은 봉사차원에서 한 일들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글렌데일 소녀상 소송을 둘기 이전 정 변호사는 2008년도 즈음 탈북자 망명 신청을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받아주는 탈북자 특별법이 발효됐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망명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탈북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성의 논리, 성경과 달라

그는 변호사로 일하며 느낀, 법이

지닌 한계, 신앙과 이성의 격차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법은 합리적이며 이성을 중시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반대로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다는 측면을 지닌다.”

“여호수아는 내일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대책회의를 안 한다. 2백만명

이 배도 없고, 언약궤, 텐트도 있는데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라고 묻지도 않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울 무기도 없고 대책이 전혀 없는데 그들은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궤를 멘 자들이 강물을 밟자 강물이 멈춘다. 건너가서도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50-60만 명이 할례를 받는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거동이 힘든데도 순종한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랬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동성애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생활 문제고 나라가 나서서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이나 성경에는 굉장히 죄악된 것이라 적혀 있다. 미국에서 크리스천의 힘이 빠지는 원인도 그 때문이다. 합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반성경적인 것들이 합리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격한다. 타종교의 문화에 대해서는 다문화주의이며 관대하게 대

하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말은 직장내에서 할 수도 없다. 크리스천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조계에서 기독교가 설 발판 좁아져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법조계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현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기독교 신앙과 법의 근거가 되는 ‘합리와 논리’가 상충을 일으켜 자칫 비합리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분야는 합리와 논리를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로스쿨에서도 크리스천임을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과거 한 미국 판사는 미국은 기독교에 뿌리를 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1980년대까지는 존재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동성애는 합리와 이성이라는 것에 맞는 것이나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죄다.”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며 신앙 배워

그가 신앙을 시작한 것은 2003년

아내를 통해서다. 아내의 강요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 차츰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합리주의였던 그가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10년 동안 꾸준히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은 안 읽을지언정 자신은 억지로라도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됐다. 그 중에는 여전히 착실히 신앙을 배우려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인권에 대한 문제로 갈등하다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다.

인권 문제로 교회를 떠나간 청년

“그 친구는 인권이 성경과 맞지 않다고 고민했다. 학생들이 공립학교나 대학에서 합리적 교육을 받으며 신앙에 대해 갈등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논리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도 말이 되나 성경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속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보기 위해 하면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는 이 같은 물음을 비롯해 사람들의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신론자의 공격에는 구약 성경이 답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 하는 공격 중의 하나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느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었다. 레위기 18장에 기록해 놓았다. ‘땅이 그들을 토해 낼 정도로 악했다.’ 즉 그들을 없애 버려야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에서 집안의 후손인 그니스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12 자파의 대표가 된다. 이런 면에서 구약을 읽는 게 중요하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몰라서 이런 공격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어렵게 쓰여 있기도 하다. 외국인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지사가 됐듯 갈렙도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헐륭하니 상을 주신 거 같다.”

법과 기독교인의 삶, 연구 필요해

그는 미국법이 가는 방향과 법이



정찬용 변호사

기독교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또 그것을 토대로 기독교가 법에서 밀려나고 있는 오늘날, 믿음을 법적인 차원에서 변호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독법조인회(Christian Legal Society) 같은 단체도 있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세미나를 열기도 하나 본격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독교와 관련해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 조직 차원에서 법적 행동을 취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이나 로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작은 일은 아니며 기독교가 연합해서 접근해야 할 굉장히 큰 차원의 일이다.”

“얼마 전 이한탁 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20년 넘게 싸운 분들이 계시다. 한인 기독교 사회에서 그 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분들에게 미안해 해야 한다. 20년 넘게 그분들이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 뒀다. 크리스천 법률연구소가 있어서 이한탁 씨 사건 같은 것을 도와줬다면 지금쯤 그 센터가 칭찬받고 좋은 증거를 받았을 것이다.”

또 그는 유대인 교수 중에는 유파과 미국의 법을 적극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분이 계시나 크리스천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법과 기독교’를 주제로 연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페퍼다인 대학의 유대인 교수가 쓴, 유대 유파과 미국의 법을 비교한 논문을 읽은 게 기억난다. 그분은 그 분야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발표했다. 그런데 기독교 쪽에는 이것을 연구한 논문도 없고 가르치는 교수도 없다. ‘Law & Christianity’ 이런 식으로 이 둘을 함께 연구해보고 싶다. 또 ‘합리적으로만 봐서는 해결 안되는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로만 한다면 믿음은 설득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과연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인가’ 등을 논의하고 싶다.”

+정찬용 변호사는 로욜라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욜라대학 학술지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的 선임편집장으로 있으며 상법, 민사, 지적재산권, 노동법, 부동산, 건설 등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한 주디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 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행사수익금 전액은 2015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58,000를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102명의 장애인 학생에게 총 \$161,400를 지급하였습니다.

예매처:

한희준
American Idol
K팝스타
Heejun Han
http://holdeal.koreadaily.com 213-368-9828 or 213-784-4628

정음사(코리아타운플라자 내) 213-387-6767 / 두란노서울 213-382-5400 / Joy 기독교서점 323-766-8793

밀리알선교단 213-739-8107, 로데오갤러리아점 213-380-8885, 풀러튼점 714-523-7060, 가든그로브점 714-530-8484

도르기기독교교회점 714-636-7430 / 복음사 562-865-4949 / 올리티시점 310-325-9191 / 예일서점 626-912-2225 / 베일서점 949-854-9191

2014 밀알의밤 Open Your Eyes (John 9:39)

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영혼을 울리는
작은 천사
**크리스토퍼
더플리**
Christopher Duffley

10월 17일 (금) 7:30pm
ANC온누리교회 / www.anconnuri.com

10000 Foothill Bl., Lake View Terrace, CA 91342

10월 18일 (토) 7:00pm
주님의영광교회 /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10월 19일 (일) 7:00pm
베델한인교회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밀알장애인장학 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근로복지생, 꿈나무장학생

자격:
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복지생: 00명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중 선발

꿈나무장학생: 00명

장학금액:
장애인장학생 및 근로복지생: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 (일시불)

신청마감:
2014년 11월 14일(금)

발표:
2014년 12월 15일(월) - 개별통보

신청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Tel: 657-400-9570
smilal@milalmission.com

자세한 사항은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milalmission.com

특별후원: FOREVER 21 Ace Engineering, Inc.

Ticket Donation: \$10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www.MilalMission.com / 657-400-9570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23~27



본문) 마 8: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 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마8:14-15)”

베드로는 어부로서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로 그 집은 가장이 없이 그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형편에 그 장모가 함께 살며 베드로의 빈자리를 메워 딸의 집에서 그 가정을 도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열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면서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 앓아누운 장모의 손을 만지심으로 나음을 입은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궤합니다. 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우물에 물을 긴기 위해 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봄으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그 동네의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예수님을 그 동네로 모셔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장모의 열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 온 동네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재료거리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마8:17)”였습니다.

구약에서 1600여년을 두고 보내주

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집과 그 동네가 다 알아보도록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8:19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쫓겠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자신을 따르겠다는 말 속에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대를 걸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임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중심이 간절하고 수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애쓰다 보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예워쌈을 보시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허둥대며 불안에 떨며 죽을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 노력을 다해 배를 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가능성이란 기대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無知)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고 불안해 하며 혓 고생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곳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6:3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음이 없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태연하게 지팡이를 들고 언덕에 올라가 많은 백성들이 다 듣도록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하다가 어떤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의시기에 그분이 책임지시고 유익한 결과로 이끌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스승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부터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랑이 일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하신 기대,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한 환란이고 풍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즉시로 해결이 서둘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속적 기대와 혈기로 인하여 당하는 환란과 풍파는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며 살겠으니 용서해 달라는 절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음으로 해결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9:10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걷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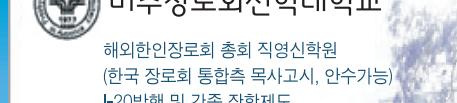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교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T V 미국 방송 설교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헐퍼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본소리방송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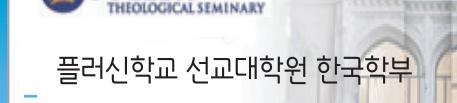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안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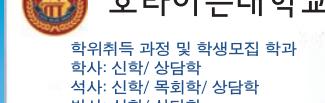
www.ptsa.edu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http://absw.edu)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With the world!

To the world!

총장: 박연도 박사 (D.P.M.) 총장 김근수 박사 (Th.M., Ph.D.)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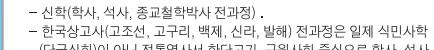
사명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 (D.P.M.) 총장 김근수 박사 (Th.M., Ph.D.)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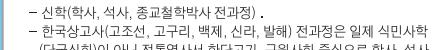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i.us



미주성결대학교 AEGEAN UNIVERSITY

한국성결교회 100년,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학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풀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 (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쇼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하이테크 vs. 하이터치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새로 이사하면서 케이블 TV를 주문했습니다. 케이블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 케이블 박스를 연결해 주고 갔는데, 채널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리모트 콘트롤로 작동을 시도해 보지만, 리모트 콘트롤 자체가 너무 복잡해 엄두도 못 냅니다. 단추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어느새 아이들에게 리모트 콘트롤을 맡기며 채널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TV 채널이 세 개뿐이었던 시대에서 자란 저와 채널이 천 개가 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이폰 신제품 6가 출시되면서 예약 주문량이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출시되자마자 품귀 현상에 웃돈까지 주며 하루라도 먼저 소유하려는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의 전쟁입니다.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빠른 기술의 전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왔다고 이렇게 야단스

러운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기도 그 기능을 십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신제품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른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진득한 면이 부족하다고 걱정합니다. 새것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만큼이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이 상대적으로 걸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두들기며 수천수만의 선택 속에 자란 세대라 그런지 이전 것을 갈아치우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이테크 신제품

에 열광하는 현대인의 모습도 결국 하이터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전화기 한 대로 쓰던 시대에서 식구 수대로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로 변한 것은 '나만의 것'을 찾는 하이터치의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비행기는 앞에 큰 화면을 틀어 놓고, 아무 선택권 없이 틀어주는 영화를 보았지만, 이제는 좌석마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수많은 영화와 음악을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하이테크는 하이터치의 필요에 따른 수반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하이테크 시대에 목회의 방법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배를 위해 필요한 프로젝터, 조명 및 시설 등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야 할 것은 목회의 기술은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터치입니다. 저는 시설투자와 더불어 오늘도 예배 후 성도님들의 손을 잡기 위해 교회 마당에서 서성일 것입니다.

최상의 삶



이 서 목사
미주비전교회

우리의 삶에 아픔, 문제, 외로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더 나아집니다. 다윗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집에 갔을 때 그 때가 최고입니다.

먼저, 천국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요14:1-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쳐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성경은 천국을 북쪽에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

고, 다윗도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자마자 곧바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성도는 죽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죽음은 최상의 곳을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최상의 곳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미움이 없고, 상처가 없고, 신음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예수 믿었던 부모, 자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니다. 그 분의 영광 그 분의 사랑, 그 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지금 몸을 떠나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놀라운 곳입니다.

끌으로,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한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것 만을 위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항상 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국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그 분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김 지 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to move the rock)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to push against the rock)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 자신을 보렴.” 그가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었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사가 준 작은 책(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다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특성을 지녔음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악이 쓰다는 말은 악의 효능을 설명한 것입니다. 써도 몸에 좋으니까, 병든 몸을 회복시키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성에 물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 들어가는 변화가 분명 당신의 뒷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수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불잡히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며,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잡히면 그 사람의 지식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말도, 가치관도, 목적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산성화되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름을 자꾸 주면 점점 알칼리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부딪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되게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파하고 황폐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손가락질 받으며 기피 대상이었던 존재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만이 받습니다. 그렇기에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시다. 그 말씀을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 들어가는 변화가 분명 당신의 뒷이 될 것입니다.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혈액 해독 / 기력회복

권장소비자가격: \$184/병**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셀라케어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카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발작.자폐증.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셋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해소.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갈아 복용 후 심한 호흡 반응 겪고 완치될 후 4개월 뒤 동통이 줄어들어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웰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 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간질증세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 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웰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기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우울증.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샘 양(15세, 웰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19-7746

심한 알레지.우울증.불면증.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담석.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반혈과 혈액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 관절염.변비.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당뇨.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민현자(65세, 방배동) 원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치료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설(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기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톱이 나무 같아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기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웰에이) 213-215-6991

췌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사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기적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웰에이) 213-215-6991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차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증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라(뉴저지) 213-215-6991

모유 아주적음.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둘째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밭에서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여 좋다는 악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나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원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았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을 들기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감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213-215-6991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5일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213-215-6991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길(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최정석(50세, 웰에이) 213-215-6991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 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건강과 성경 이야기 23**

오늘은 불치병이라 불리는 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의 종류로는

• 위암(胃癌): 동양 사람들에게 주로 걸리는 암입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맵고 짠 음식이 위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장암: 유럽, 미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입니다.

• 간암(肝癌): 간에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의미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주로 걸리는 암입니다.

• 폐암(肺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으로도 걸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 췌장암(脾癌):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말하며, 췌관선암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치종암: 잇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되어 걸리는 암입니다.

• 혈액암: 백혈병이라고도 하며, 적혈구가 너무 적어서 피의 공급이 안 되서 생기는 암입니다.

• 유방암(乳房癌): 유방 내에만 머무는 악성 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 이외에도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직장암, 구강암, 자궁암 등이 있고, 뇌종양은 두뇌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절제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재발율도 적다고는 합니다. 퍼지기 시작한 암은 고치기가 힘들며 말기의 암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으며 다만 몇 가지 항암제에 의존하여 환자의 생명을 늘려 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이 치료를 위하여 환자가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였고 합니다만, 사도행전을 크게 들여 놓았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하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세인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동부총판	201.983.8333
시운약국	213.382.6485	LA별문 마린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문 캘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증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센트리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학생 감소는 불가항력… 다그치지 말고 본질 회복을”

기교연, “교회 교육 혁신할 5가지 방안은 바로 이것들이다”



기교연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 이하 기교연) 주최 '2015 교회교육 디자인 컨퍼런스'가 9월 29일 오후 서울 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기교연은 이날 '교회교육의 새로운 대안, 교회-가정-학업을 연계하라'를 주제로, 교회학교 교역자들뿐 아니라 각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박상진 소장(장신대)이 '2015년 교회전망 및 기독교교육'을 주제강연했다.

저출산 고령화, 피할 수 없어

박상진 소장은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각 교회에서 교회학교 담당자들을 너무 다그쳐선 안 된다"며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장 큰 파도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고 전제했다. 이러한 '통계학적 파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예장통합총회 기준으로 연령별 편차는 있지만, 지난 10년간 대부분 부서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유년·초등부는 2만여명, 소년부는 3만여명이 줄어드는 등 20~30%의 감소 추세다. 이에 대해 "물론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는 이외에도 세속적 교육열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은 전체 유소년 인구의 감소"라며 "이 현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과거에는 교육부서를 맡은 교역자들만 다음 세대의 위기를 절감했지만, 이제 담임목사들이 '다음 세대의 위기는 바로 교회의 위기'임을 깨닫고 적극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도를 찾고 싶어한다"며 "2015년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 세대'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회학교 살리기"나 '교회학교 부흥'이라는 접근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러면 오늘날 교회학교의 위기는 오히려 교회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교육을 '신앙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이라 정의한다면, 그 방향은 '교회학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

박상진 소장은 교회학교의 '전통적인 학교식 체제(Schooling system)'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교회학교가 지닌 한계로는 첫째로 빌달단계를 기본으로 한 학년별 구성이고, 둘째로 교육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데도 자라나는 세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셋째로 기본적으로 대중을 전제로 한 일방적 교육체제이고, 넷째로 가정과 분리돼 신앙계승에 맞지 않는 구조이며, 다섯째로 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인 학업 문제와 분리돼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 등을 들었다.

교회교육의 새 패러다임 5가지

이 같은 교회교육 한계점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안으로는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는 일방적 강의 형태가 아닌 '관계를 강조하는 구조로의 변화'이다. 박 소장은 "기독교 신앙은 사실 강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며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소규모 인원을 오히려 내면을 변화시키는 인격적 관계를 맺을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그 상징적 모델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로,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 관계적 교육구조에는 멘토링을 비롯한 일대일 만남, 토의를 강조하는 소그룹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가정과 회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방식 등이 있다.

둘째로는 교사 1인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식 체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나눔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다. 박 소장은 "오늘날은 모든 교육에 있어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다"며 "신앙공동체 안에 참여함을 통해 한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문화를 내면화하듯 일종의 문화로서의 신앙을 갖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신앙 형성에 관건이 된다"며 "비록 소수 인원이라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대 간 만남과 구성원 간의 삶의 나눔을 통해 신앙이 형성되는 공동체 교육이 요청된다"고 했다.

셋째로는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구조'이다. 박 소장은 "복음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신앙적 삶은 스스로 참여하여 경험할 때 비로소 획득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경험하고 참여하여 온 몸으로 체험하

는 신앙교육, 정각이나 시각만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걸맞는 교육방법이기도 하다. 그는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며 "학생들이 암의 주체자이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경험할 때 진정한 신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로는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한 전인교육'이다. 복음적 삶이 형성되려면 주일 아침 분반공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6일간의 삶과 연결돼야 하고, 이는 결국 가정과 연계돼야 한다. 박 소장은 "주일 학교가 역사상 많은 공헌을 했지만 결정적 한계가 있다면 바로 교회학교와 가정의 분리"라며 "이제 부모를 자녀들의 신앙교육 책임자로 세우는 부모교육을 교회에서 실시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과 학업의 연계'이다. 박 소장은 "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은 신앙과 학업이 분리돼 있다고 이해하지만, 성경을 관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교육원리는 바로 신앙과 학업이 연결돼 있다는 것(잠 1:7)"이라고 했다. 신앙과 학업을 연계시킬 방안으로는 교회가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외에도 방과후 학교나 주말학교, 그리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는 단기교육 등을 꼽았다.

이대웅 기자

포항중앙교회 창립 67주년 맞아 말씀 축복 성회 개최

서임중 목사
후임으로 손병
렬 목사를 제9
대 담임목사로
청빙한 포항중
앙교회는 10월
1일(수)부터 11
일(토)까지 새
서임중 목사
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에서 창
립 67주년 기념 말씀 축복 성회를
개최한다.



포항중앙교
회는 1947년 방
상식 목사와 12
명의 교인들이
일제의 신사가
있던 포항시 덕
수동에 창립했
으며 서임중 목
사에 앞서 정철수
목사, 여준성 목
사, 박창근 목사, 김용근 목사, 원리
정 목사, 주인정 목사, 김명희 목사
가 시무했다.

이번에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손
목사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
를 받았으며 서울 중곡동교회, 서소
문교회, 나성영락교회 부목사를 거
쳐 2004년 남가주 동신교회에 부임
해 10년 6개월 간 시무했다.

앞서 8월 20일에 열린 '제 9대 담
임목사 환영 감사예배'에서 그는 "가
난하고 상처 입은 교인과 이웃을 섬
기며 한국 교회의 롤모델을 보여 주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주디 기자

선교계 지도자들, 사회와 교회의 '8개 영역' 변혁 논의

변혁한국, KWMA, KWMF, 세계
성시화운동본부가 9월 29~30일 분
당 할렐루야교회(담임 김승욱 목사)
에서 '선교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와
교회 변혁 토론회'를 열고, 가정·미
디어·문화예술·비즈니스·정부·교
회·교육·다음 세대 8개 영역 변혁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루는 8개 영
역 중 '다음 세대'를 제외한 7개 영
역은 '세계변혁운동'이 설정한 변
혁 목표다. 세계변혁운동은 2001년
을 기점으로 2004년 10월 태국에서
세계복음화쟁점포럼이 열리기까지
전 세계 300 도시 8,000여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 태동했다.

이 운동은 문화의 회복을 위한 교
회의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고, 2012
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세계
변혁 글로벌 챌린지 회의'에 48개국
4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중·장기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첫날 오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7)는 주제로 기
조강연자로 나선 한정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는 한국사회가
21세기 들어와 급속히 다원화·다문
화되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과거
의 목회 및 전도 패러다임으로 대
응에 한계를 보일 뿐 아니라 도리
어 사회의 저항을 받고 있는 듯하다
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성경
적·성찰적이며, 이론과 실천을 통
합하여 종합적이고, 한국 문화에 적
합한 자신학을 개발할 것 ▲안티기
독교의 공격과 사회의 비난 앞에서
분열된 행동을 삼가고, 최대한 우리
자신의 변화와 사회 변화 앞에 분
히 일어서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견전한 한국신학으로 '고난
과 함께하는 축복의 신학' '위기와
변혁의 신학' '민족복음화와 세계선
교신학' 등을 꼽았다.

류재광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Beverly 3rd Wilton Pl Normandie 6th Wilshire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라 \$30 up \$10 up
* 단, 컬라만 하시면 \$30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일상가는 맞춤이들이 찾는 곳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동성애 옹호 논란

“동성애 죄이지만 동성애자도 목회자 될 수 있다”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지난 22일 콜로라도에 위치한 그랜드 래피즈커뮤니티컬리지(Grand Rapids Community College)에 연설자로 나선 카터 전 대통령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는 레비즈언, 동성애·양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과 인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난 침례교인이며, 각각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만일 지역의 침례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동등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러하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정부 기관에서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카터는 조지아 주의 마라나타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왔다.

과거 카터를 비롯한 텍사스 남침례교인들은 여성목사 악수를 거부하거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남침례교의 보수적인 태도에 반발해 교단과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바울은 여성들에게 머리에 장식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남자들에게는 수염을 자르지 말라고 했고, 정욕을 이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권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모든 예배자들은 이러한 특정한 성경구절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는 또한 게이나 레즈비언도 침례교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동성애가 간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심일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죄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다. 간음은 동성애보다 중한 죄”라면서 “동성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예수 역시 동성애자를 비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일부 남침례교인들은 “동성애나 낙태 반대 등은 오랜 세월 지켜져 온, 남침례회 전통”이라며 “카터의 주장은 대다수 남침례교인들과 다른 것”이라고 했다.

카터의 이러한 언급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블로그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는 큰 논쟁이 일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세계적 밴드 U2의 보노, 빌리 그래함에게 시(詩) 헌정

시 ‘믿음의 여정’ 통해 존경심과 사랑 표현



2002년 활영된 사진으로 오른쪽부터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보노, 빌리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리더이자 국제 구호 운동가인 보노(Bono)가 빌리 그래함 목사를 위해 시를 헌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노는 지난 2002년 노스 캐롤라이나 샬럿에 위치한 그래함 목사의 자택을 방문해 그를 만난 이후 ‘믿음의 여정(Journey of Faith)’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으며, 현재 이 시는 빌리 그래함 도서관에서 전시 중이다.

영국인인 보노는 스스로를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 왔으며, 그가 이끄는 U2는 인간 존재와 신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곡들을 발표해 왔다. 그는 또한 가장 활발하게 국제 구호활동에 동참하는 세계 유명인들 중 한 명이다.

빌리그래함복음전도협회(BGEA)는 이 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스 캐롤라이나의 농부를 사용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축복을 전했는지 알려주는 시”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시는 빌리 그래함의 아내인故 루스 그래함(Ruth Bell Graham) 여사와 나란히 마주앉은 보노의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 역시 2002년 그래함 목사의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활영한 사진으로, 그래함 여사와 보노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는 최근 U2가 새로운 앨범 ‘송즈 오브 이노센스(Songs of Innocence)’를 발매한 데 따라 이를 기념하며 시를 전시한다고 밝혔다. U2의 이 앨범은 지난 주부터 아이튠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제공되고 있다.

보노는 싱어송라이터인 패트 블루(Pat Boone)을 비롯한 다른 뮤지션들과 함께 빌리 그래함의 87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노래 ‘고마워요, 빌리 그래함(Thank You Billy Graham)’을 녹음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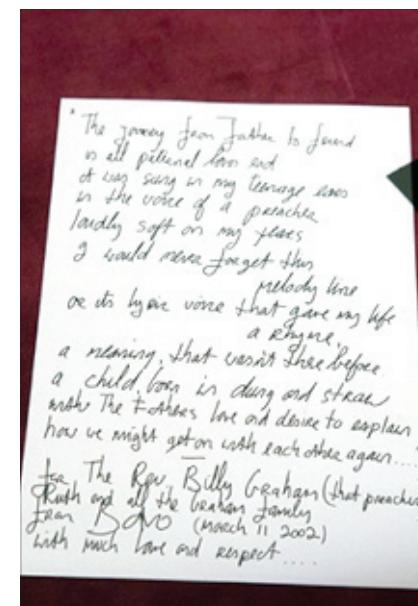
미국 복음주의 사회정의 단체 소저너스(Sojourners)는 보노와 그래함 가족과의 우정이 2002년 U2가 미국에서 투어 공연을 하던 당시 시작됐다고 밝혔다.

보노는 빌리 그래함의 전화를 받았고, 이 때에 대해서 “나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빌리 그래함이라니!’라고 말했다. 비행기를 빌려서 그가 (나와) 약속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재빨리 날아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를 태우고 두 시간 정도 달려 빌리 그래함 목사와 그의 아내 루스 그래함 여사를 잠깐 만났다”며, “그래함 목사의 축복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보노는 뮤지션으로 활동해 오면서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류해 왔지만, 그래함 목사와의 만남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레함 목사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난다. 교회 사람들은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 음반을 사라고 하는 학교 친구처럼 빌리 그래함 목사를 알리려 한다. 사실 그 둘은 비슷하긴 하다. 남부 출신에 콧소리로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든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현정 기자



U2의 보노가 빌리 그래함 목사에게 헌정한 시 ‘믿음의 여정’ ©빌리그래함전도협회

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부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침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00 창당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후 6시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urhrc.com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32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오전 10:30(수)

정우성 담임목사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가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광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부 저녁 7:30(화)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부 오후 7:30(화)
오전 10:30(수)

정장수 담임목사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kc.us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5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이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전진예배(목요일) 오후 7시30분
교회학교 주일 오후 9:0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김정수 담임목사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kc.us

나성동산교회

온애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 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 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신답 및 대행(점부 베네핏 진단)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퍼미킬, 임상부 메디칼

주일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요한 선교회

gka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한현섭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오후 창당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달하는/신앙 공동체

45

교회 및 선교소

LA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말) 오전 11:30 토요도입(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말) 오후 01:30 성경연구회(주)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후 9:3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3부예배 오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후 9:30 새벽예배(화~금) 오후 5:30
3부예배 오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후 11:45 오후 6:00(토)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립나눔터(매주토) 오전 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후 10:00 오후 6:00(토)
3부예배 오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후 10:00 오후 6:00(토)
3부예배 오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유아동부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기대연습 모임 10:20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유아동부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기대연습 모임 10:20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부란 새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 8:00 오전 9:30/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EM)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점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후 5:30
새벽예배(EM) 6:00(토)

최호년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예배 오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본분)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전 11:20 새벽예배(EM)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EM) 오전 5:30
6:00(토)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10:00 / 11:45
금요영성봉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05:30, 토 6:00
1951 Rinaldi St., Norridge, CA 91326

세리토스체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10:00
금요영성봉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체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EM)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ighway #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새벽체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EM)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ighway #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혁 담임목사

뉴욕목사회, 시와 음악과 함께 한 목회의 여유

시가 있는 목회 주제로 자작시 발표회 열어



뉴욕목사회가 '시가 있는 목회'라는 주제로 22일 자작시 발표회를 열었다.

척박한 이민환경 속에서 묵묵히 목회를 하고 있는 뉴욕 목회자들이 지난 22일 저녁 뉴욕비전교회(담임 활동의 목사)에서 모처럼 만에 특별한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뉴욕목사회(회장 활동의 목사)가 '시가 있는 목회'를 주제로 목회자 자작시 발표회를 진행했다. 시와 음악, 또 찬양이 있는 이날 문학모임을 통해 목회자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의 여유를 보여줬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성경묵상 중에서, 역경 중에서, 이민생활 중에서,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시상을 적은 시들을 발표했으며, 이날 발표된 시들은 이민목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목회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또 시를 낭송하는 중간 중간 무대에 오른 유상열 목사의 색소폰 연주와 우병만 목사의 가곡, 유태웅 목사의 건전가요는 어느새 다가온 가을의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했다.

시가 낭송될 때마다 유상열 목사는 피

아노로 분위기를 보조했다. 목회자들의 모임이기에 찬양 순서도 잊지 않았다. 목회자들이 문학과 찬양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총 12명의 목회자들이 시를 발표했다. 발표자는 △김연규 목사(모세의 삶) △우병만 목사(가을의 기도) △이영상 목사(가을이 오는 소리), △임병남 목사(고향) △유태웅 목사(빈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임지윤 목사(Forgiveness) △장현숙 목사(사명자의 길) △조의호 목사(청개구리 더울지 않으리) △지인식 목사(이민 갈매기) △윤세웅 목사(크리스천 시인들) △황동의 목사(초로의 향내) △김길홍 목사(천자창조) 등이다.

목사회장 취임 당시, 목회자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던 활동의 목사는 이날 인사를 통해 "바쁜 목회 종에도 신령한 시를 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목회현장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메마르지 않게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주께 받은 소명의 길 기쁨으로 걸어갈 것"

C&MA 한인총회 교단 연장 교육



웨더럴웨이 새교회에서 열린 2014 C&MA 한인총회 교단 연장 교육

C&MA 한인총회 교단 연장 교육이 지난 22일부터 워싱턴주 웨더럴웨이 새교회(담임 원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C&MA 연장 교육에 참석한 교단 소속 미주 지역 목회자 100여 명은 주님께 받은 소명의 길을 다시 한 번 굳게 불들고 은혜 가운데 목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개회예배를 인도한 조현배 목사(시카고 한인서부교회)는 "목회는 영광을 얻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작아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길"이라며 "목회의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고난과 환란, 펑박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조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며 "영광의 길, 출세의 길이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목회자의 길, 소명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모든 C&MA 소속 목회자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번 연장 교육은 25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설교와 제자훈련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연장 교육은 25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설교와 제자훈련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개회예배를 인도한 조현배 목사(시카고 한인서부교회)는 "목회는 영광을 얻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작아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길"이라며 "목회의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고, 고난과 환란, 펑박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Nyack College를 통해서 선교사를 훈련시킴으로써 이 거대한 운동을 세계 선교로 이끈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박인화 목사 “저돌적으로 전도하라” 강조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해 보면’ 주제로 세미나

2014 애틀랜타 복음화대회 강사로 초청된 달拉斯 뉴송교회 박인화 목사는 27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죽은 교회를 해부해 보면’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전했다.

톰 레이너 목사의 책 [Autopsy of a Deceased Church]를 기반으로, 매년 뉴송교회가 소속된 남침례교에서만 8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심각성을 재고한 박인화 목사는 죽어가는 교회의 조짐에 대해 ▲성도수가 감소한다 ▲장기적인 무관심에 빠져있다 ▲지역사회가 교회의 존재를 모른다 ▲목회자들이 2~3년 주기로 계속 바뀐다 등을 꼽았다. 또한 이런 교회들은 ▲과거를 영웅시하며 ▲선교와 구제에 예산을 쓰지 않고 내부적인 일에만 사용하며 ▲대사명이 활발하지 않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도들의 요구에 이끌려 가는 경향이 있으며 ▲모여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 시설을 유지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목적이 없다고 분석했다.

“신학생 시절만 해도 ‘할렐루야 전도대’를 만들어 거의 매일 전도를 했던 열정이 있었는데, 20~25년 목회를 하다 보니 어느새 태성에 젖어 전도하지 않게 됐다. 이민교회 목회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한다. 하나님 은혜로 뉴송교회가 성장해 새 성전으로 이전했지만 웬지 마음이 답답했다.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인지 고민하다 T4T라는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전도하지 않고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

10년 동안 170만 명에게 침례와 세례를 주고, 15만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한 중국 선교의 임지전적인 인물 임카이 목사(Ying Kai)가 당시 T4T(Training for Trainer) 운동은 개척 선교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담고 있다.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훈련은 그리스도께로 인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헌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T4T 훈련은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2014 애틀랜타 복음화대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한 박인화 목사

서 겸증된 교회개척운동의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박 목사는 T4T를 통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 올랐고 이를 교회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담임목사의 인도를 성실히 따라준 성도들의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쳤다고 밝혔다. 실제 선교지에 적용된 내용을 이민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했다.

“결국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수님의 대사명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 선택하라고 했다. 성도들과 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NO’를 하면 떠날 각오까지 했다. 다행히 성도들 역시 저의 진심과 대사명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교회 전체가 ‘영적 노마드 작전’을 펼쳐 간단한 전도훈련을 통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교회 체질이 전도를 당연히 생각하는 것으로 확 변화됐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크루즈 선이 아니라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박 목사는 마지막으로 “저돌적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에 순종해 씨를 뿌리자”고 강조했다.

박현희 기자

O.C./얼바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일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람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충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일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8:00 마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2부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3부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하귀암 담임목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후 8:00 본당
2부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3부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현요 담임목사

김현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나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후 8:00 본당
2부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3부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남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amsung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오후 7:00
EM예배 오전 10:00 (FC체육)
오후 12:30 (본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예 친 교 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767
18639 Yorba Linda Bl,Yorba Linda, CA 92886(교회사무실)

주일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오후 7:00
EM예배 오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금요예배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년부 오후 1: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오후 7:00
EM예배 오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금요예배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삼도 목사

곽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주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금) 5:30 AM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6:30 AM (토)

주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금) 6:30 AM (토)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새로운 교회

이세우를 본받고 마음을 사용해 변화를 벌이는 하나님의 선교사(기쁨으로 고양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로써 일상에서 변화를 벌이는 일상으로 살천

4496 Larwin Ave, Cypress, CA 90630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45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영어주일예배 오후 10:00 새벽예회 월~금 오전 6:00
도주일 오전 6:0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례부 오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우대권 담임목사

최국현 담임목사

HQ**山
參****100% 미국 야생 산삼****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한 뿌리 한 뿌리
정성스럽게 캤습니다!****미국 야생 산삼****1 파운드 = \$800~\$1,300****+ 특별 선물 무료 증정****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어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림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마계의 약리작용을 강화한다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8.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곱게하며 종기를 식혀줌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함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22. 모든 질병의 뻔한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돋아준다
23. 주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 진다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점 (213)365-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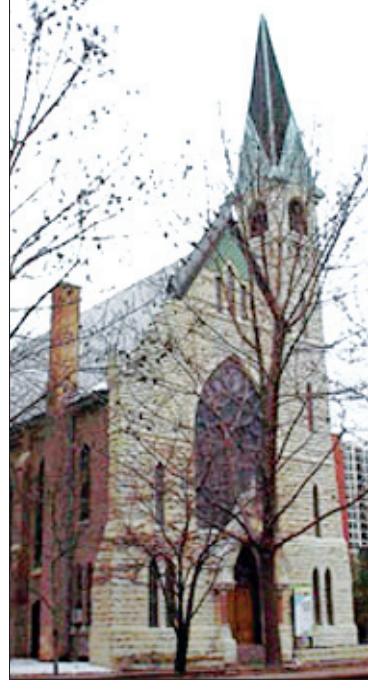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세리토스 직영점

교인들에게 500달러씩 주며 “선한 일에 써 달라”



시카고 라살스트리트교회

미국의 한 교회가 ‘선한 일에 써 달라’며 교인들에게 500달러씩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는 25일 시카고에 위치한 라살스트리트교회가 320명 교인들에게 500달러짜리 수표를 한 장씩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회 측은 동봉된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권했다. 수표에는 ‘오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교인 발렌시 해스팅스(42)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으나, 곧 엄청난 책임감이 들었다”고 했다.

라살스트리트 교회는 지난 6월 뜻하지 않게 들어온 수입으로 이 선 행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라살스트리트교회는 지난 1970년대 인근 3개 교회와 함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지원했다. 40년 만에 이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고, 지난 6월 주택단지를 매각하면서 160만 달러라는 큰 수입이 생긴 것이다.

담임목사인 로라 트루엑스와 장로들은 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내 신도들에게 선행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돈은 교회 전체 이름으로 선한 목적에 쓰기로 하고 의견을 모고 있다.

트루엑스 목사는 “이 돈을 주택 임대료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 교회에는 부유층에서부터 노숙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회를 뜻깊게 잘 사용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前 영국 총리 “전도서 가르침처럼 스코틀랜드 하나될 때”

분리독립 무산 후 갈등 딛고 연합으로 나아가길 촉구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성경 가르침을 기반으로 스코틀랜드의 화해와 연합을 촉구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 18일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투표가 치러졌으며, 그 결과 찬성표 45%, 반대표 55%로 독립이 무산됐다. 이 같은 결과에 독립을 지지해 왔던 알렉스 셸먼드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분리를 열망했던 이들은 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그리 크지 않은 표자는 찬반을 달리한 주민들 간의 잠재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브라운 전 총리는 스코틀랜드가 투표 결과를 뒤로 하고 다시금 하나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최근 연설을 통해 전달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구약의 전도서 구절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스코틀랜드교회 목회자인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연설 하셨다면 아마도 성경 구절을 전하셨을 것이다”며, “법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로 시작되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까지를 인용했다.

그는 “성경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가르친다. 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현재의 자리를 발견한다”며, “싸울 때가 있고 연합할 때가 있으며, 지금은 우리가 연합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공동의 기반을 찾으려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출신의 브라운 총리는 이번 주민투표에 앞서 영국 주요 정당들을 대표해 반대 운동을 이끌어 왔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 전부터 스코틀랜드 교계는 공식적인 중립 입장 을 발표하며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화해와 연합”이라고 강조해 왔다.

스코틀랜드의 최대 개신교단인 스코틀랜드교회(Church of Scotland)는 주민투표일에 하루 앞서 이뤄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찬성에 투표하는 사람들과 반대에 투표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는 같은 스코틀랜드인이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투표일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편에 서게 되더라도 견해차로 인해서 우리가 갈라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일 다음날 우리가 일어날 때는 (결과에 상관없이) 스코틀랜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우리의 이웃인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 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인구의 8%,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잉글랜드의 침략 역사로 인해 반잉글랜드 정서가 지속되어 왔다. 1707년 연방헌법에 의해 단일국가에 속하게 된 이후에도 서로 다른 역사와 언어, 문화, 종교로 갈등을 빚어 왔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반대하는 이들은 국가 분리가 영국 내 사회적 혼란은 물론 경제적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유럽 지역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손현정 기자

오바마, 유엔 연설… “죽음의 네트워크 해체”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슬람 국가(IS) 무장세력 공습과 관련해 “이 죽음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연합세력을 구축할 것”이라 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 같은 퀄러들이 이

해하는 유일한 언어는 무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IS 합류자들에게 “전장에서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는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미국은 IS를 무력으로 맞서는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존경심을 표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국적으로 종파주의와 극단주의 척결은 중동인들 자신의 세대간 임무”라며 “어떤 외부의 힘도 내부 영혼을 변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박해받는 형제들 위해 기도하자

프랭클린 그래함, 아베디니 목사 구명 위해 연설



아베디니 목사의 구명을 위해 백악관 앞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발언 중이다. 옆은 아베디니 여사와 자녀들.

이란에서 고아들을 돋는 사역을 펼치던 중 기독교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복역 중인 사에드 아베디니 목사를 위해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목소리를 냈다.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이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의 대표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이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300명이나 되는 여학생들을 넘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또한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거리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벌이지도 않는다”고 극단주의 이슬람에 의해 벌어진 반인도적인 범죄들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 집회에 참석한, 나그매 아베디니 여사는 “남편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감옥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이 사실이 고통스럽고, 또한 아빠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아베디니 여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디니 목사의 복역 2주년을 맞아 최근 백악관 앞에서 열린 기도 집회에 연사로 나선 그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며, “그 중 가장 위대한 일은 이들을 위한 기도”라고 밝혔다.

그래함 목사는 또한 아베디니 목사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룬다는 이유로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는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극단주의자들의 행위를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무슬림들을 향해 촉구했다. 그는 “평화로운 종교의 신앙인들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야만적으로 참수하지 않는다”며 최근 이슬람국가(IS)에 의해 벌어진 참수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평화의 종교는 지난 4월 보코하람

손현정 기자

ATS 가입 감사 예배 및 후원의 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미성대학교(구 미주성결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평소 대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오셔서 격려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 2014년 10월 1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미성대학교(구 미주성결대학교) 채플

주소 :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 제29회 성결포럼 ◆

한국의 교육계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행정가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유석성 총장을 모시고 “평화”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 평화

“Peace: A Perspective of Dietrich Bonhoeffer”

발제 : 유석성 총장 (서울신학대학교)

논찬 :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일시 : 2014년 10월 13일(월), 10:30 am

장소 : 미성대학교(구 미주성결대학교) 채플

기타 : 발제 후 질의와 응답, 오찬과 교제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 성 대 학 교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Doctor of Ministry (D.M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 기관협회”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정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 교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가지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 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레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촉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입학설명회

날짜: 2014년 10월 30일 (목) 오전 10:30 - 12:00

장소: LA복음연합감리교회

1200 S. Manhattan Pl., Los Angeles, CA 90019

Office: 323.641.0691 (영국구원)

담임: 이영성 목사

문의 : 이효주목사 (973-713-3009)

입학원서마감일

2015년 1월 입학 : 2014년 9월 1일까지

2015년 5월 입학 : 2015년 2월 1일까지

입학조건

- M. Div. 학위나 Th. M.
- 각 학위 성적 (GPA) 3.25 이상 선호
- M. Div. 나 Th. M. 학위 취득 후 수년의 Full-Time 목회경력
- 본 과정은 한인 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 교수와 한인 교수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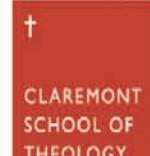
기타

- 수업료 : 학점당 미화 600달러, 2014년 5월 기준
(3학기 동안 24학점 + 논문4학점)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최고지도자과정” 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 www.cst.edu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dmin@cst.edu / Tel. 1-973-713-3009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공공성 변증] 86세로 별세한, 현대신학의 거장에 대한 추념글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가 현대신학에 남긴 공헌 (1)

머리말

지난 2014년 9월 5일 현대신학의 거장인 독일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Wolfhart Pannenberg)가 소천했다. 판넨베르그는 1928년 독일 빌트해 연안인 스테틴(Stettin)에서 세관원의 아들로 출생하여, 동베를린의 흄볼트대와 괴팅겐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1950년 바젤에 내려가 당시 신학계를 주도한 칼 바르트 밑에서 '교회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1951년 하이델베르그대로 옮겨가 구약학자 폰 라드와 조직신학자 페터 브룬너, 에드문드 슈링크의 지도 아래 박사과 정생과 교수자격후보생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1955년에 교수자격을 얻어 1958년부터 3년간 부퍼탈교회대학에서 몰트만과 함께 교수로 일했고, 마인츠대학에서 7년간(1961-1968) 가르쳤다. 1968년부터는 뮌헨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994년 퇴임할 때까지 조직신학을 가르쳤다.

그는 전주교 신학이 주도하는 뮌헨대학 신학부에서 개신교 신학부를 만들어 뛰빙엔의 몰트만과 같이 현대신학의 쌍벽을 이룬 신학의 거장으로서, 바르트의 말씀 신학 이후의 현대신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의 선의의 라이벌이던 두 살 위인 몰트만이 아직도 건강하고 한국에 10명 이상의 박사 문신생을 길러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오가며 소망의 신학 활동을 펼치는 것에 비하여, 그가 세상을 뛴 소식을 접하니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는 인간적으로 까다로운 성격 탓에 한국인 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몰트만의 인기가 높지만, 그는 해외보다는 본국 독일에서 윙엘과 더불어 독창적인 신학자로서 더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판넨베르그의 보편사 신학은 영미권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2001년 11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창조와 진화, 종교와 과학, 기독교와 이슬람 등 현대 신학의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며, 신학이 다른 학문과 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도전을 던졌다.

그는 86세 생을 향유함으로써 장수한 것이긴 하나,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는 일찍 별세한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 그의 신학을 한국에 소개함에 있어서, 아마도 1977년 여름

에 필자가 독일에서 귀국한 후에 장신대와 숭실대 현대신학 강좌에서 독일 현대신학자들 가운데 판넨베르그를 먼저 소개하고 1980년대에는 학술지에 글도 쓴 것으로 기억된다. 그 후 1990년대 오늘날 중진 학자 가운데는 김영선 교수(현재 협성대 재직)와 신현수 교수(현재 평택대 재직)가 판넨베르그 신학사상 연구로써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안다.

정통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필자는 판넨베르그의 신학 사상에 깊이 매료되지는 않았으나, 전공 영역이라 그의 사상의 독창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필자는 근 40년 전인 1970-80년대 그가 현대신학을 주도했던 불트만 중심의 실존론적 신학과 바르트의 말씀 신학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역사를 기독교 신학의 지평으로 삼음으로써 현대신학에 보인 하나님의 새로운 독창성을 소개했던 것이다.

I. 희망의 신학자라기보다는 보편성 내지 공공성의 신학자

국민일보 미션판(국민일보, 현대신학의 거장, 판넨베르크 별세, 신상 목 기자, 입력 2014-09-11 09:51)이나 기독일보가 보도([기독일보], 독일 대표적 '희망 신학' 판넨베르크 별세, 이동윤 기자 dylee@cdaily.co.kr, 입력 2014.09.11 11:27 | 수정 2014.09.11. 18:19)한 바와 같이 판넨베르그를 몰트만의 소망 신학의 범주 안에 넣어서 그를 소망의 신학자라고 한다면, 당사자인 그는 불편해 할 것이다. "소망"이란 용어는 철학자 가운데는 무신론자 블로흐, 신학자 가운데는 몰트만 사상의 주도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루터교적 보수적 성향을 가진 판넨베르그는 개혁교회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몰트만의 소망 개념이 지나고 있는 현실을 변혁시키는 급진적 내재성 성향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넨베르그에게 소망이란, 그가 강조하는 다가오는 미래의 힘인 하나님의 초월성이 동반하는 개념이며, 그가 강조하는 것은 보편사의 지평 속에서 다가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과 보편성이다.

신학은 이러한 하나님 존재의 보편성을 보편적 이성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사실의 언어로 증언하는 것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이다. 여기에 신학의 공공성이라는 학문적 성격이 있다고 본다. 판넨베르그는 인간의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한시적 기능이며,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하나님 나라의 전조(前兆)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Pannenberg, *The Apostle's Creed in the light of Today's Questions*, trans. Margaret Kohn, 1972, 152-155).

판넨베르그는 불트만을 비롯한 내적 회심을 강조하는 실존적 경건에 신앙의 근거를 두는 실존주의 학파의 시도나 계시를 보편사가 아닌 원역사(Urgeschichte)라는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키려는 바르트 학파의 시도에 반대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에 근거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역사적 계시에 대한 접근이란 맹목적 결단이 아니라 지성적 통찰이며,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세상에서 보편성과 공공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신학적 주장들은 그것들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실재에 대한 엄격한 비판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학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것(Pannenberg, "What is Truth? in: Basic Question 2: 1-27)이라고 하였다. 역사의 과정에서는 기독교 신앙이란 잠정적인 것이다.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신성이 만민에게 비로소 보편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므로 미래만이 궁극적 진리의 초점이라고 본다.

II. 보편사를 신학의 지평으로 제시

1) 계시는 역사로서 주어진다

판넨베르그는 하이델베르그 연구 시절 수년 동안 계시의 본질에 대한 그의 사상을 형성했다. 그는 바르트의 구속사 개념이 사실(史實)적 지식과 계시(啓示)적 지식 사이의 괴

리를 가진 협착성에 빠진 것에 불만을 품고, 계시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계시 사상은 판넨베르크 서클로 알려진 연구 그룹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그룹의 연구 결과는 1961년의 소책자 『역사로서의 계시』(Offenbarung als Geschichte)라는 소책자로 출간되었다. 판넨베르그는 루터신학자 엘러트(Werner Elert)와 알타우스(Paul Althaus)의 사후(死後) 독일 안에서 주도적으로 학파와 형성의 인물을 가지지 못했던 신학적 보수주의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판넨베르그는 폰 호프만(Johannes von Hofmann)에 의해 대표되는 엘링겐 학파(Erlanger Schule)의 구속사 신학이나 쿨만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구속사 신학이 시도하는 신앙과 이성의 분리, 계시개념의 성령론적 제한성에 반대해서 보편사(普遍史, Universalgeschichte)를 기독교 계시 개념의 지평으로 주제화한다. 그는 구약성서의 계시적 역사 개념과 헤겔의 이성적 역사 개념을 그의 보편역사 기획 속에서 조화시키려 한다.

판넨베르그는 계시가 역사 과정의 자체 내에서 증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칼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았으나, 그는 바르트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 역사는 이 세계과정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오며, 역사의 종국에 가서야 그 완전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역사적 계시는 보편적이어서 보는 눈을 가진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열린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종류의 세속적 경험 안에서 신앙적 암시를 끌어내고자 한 것이다(Pannenberg,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1, 18-19). 우리는 여기서 그의 신학 개념이 이성적 통찰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신학의 특수성을 수용하고 있다.

2) 역사 의미는 종국에서 드러난다

판넨베르그의 보편사 개념은 구약성서의 전승사와 특히 묵시론적 역사 이해에 의거한다. 묵시록의 역사 이해에는 이스라엘과 세상의 전 역사가 신적 행위의 전체로서 표상(表象)되어 있다. 신의 인식은 역사의 모든 사건이 완결된 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W. Pannenberg, *Die Offenbarung Gottes in Jesus von Nazareth*, 1963, Neuland III, Bd. 157.). 역사의 의미는 역사의 종말에서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판넨베르그는 유태교 묵시록이 이 보편사를 표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역사 한가운데서 아직도 도래치 아니한 역사 종말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해답의 열쇠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라고 판넨베르그는 말한다.

그에 의하면 예수의 복음선포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예기(豫期)였고, 그의 부활은 세상종말에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의 선취(先取)이다. 신의 계시는 예수의 역사 속에서 최종적으로 일어났으나, 이미 완결된 것으로서 앞에 놓여 있지 않다. 예수의 역사는 그의 통치가 아직도 오고 있는 역사(歷史)로서의 하나님 계시로서 항상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3) 신학의 두 가지 축: 보편사와 교회

판넨베르그에 의하면 신학이란 두 가지 축을 가진다. 하나는 보편사라는 축(軸)이다. 이 축에서 신학은 인간 사상 전체 안에 그 지평을 갖는다. 역사적 이성에 상응하는 축이다.

또 하나는 교회라는 축이다. 신앙에 상응하는 축이다. 신학은 교회라는 동질적인 공동체,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명백하고 의도적인 신앙고백을 하면서 사는 신앙공동체 안에 그 지평을 갖는다 (Richard John Neuhaus, "Wolfhart Pannenberg: Profile of a Theologian", in: Pannenberg, *Theology and Kingdom of God*, de. Richard John Neuhaus (Philadelphia: Westmister, 1969, 이병섭 역,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 50). 판넨베르그는 그의 보편사 신학의 착상에서 양자, 역사와 계시, 역사적 이성과 신앙이라는 두 축을 종합하고자 한다.

(계속)



▲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고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병원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 막힘으로 냄새도 못 막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다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의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몰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의과 대학교수) T.(213)380-0853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버티컬 처치

제임스 맥도널드 | 두란노 | 332쪽

미국 하비스트바이
블교회를 시무하는
저자는 제목처럼 '수
직적 교회(Vertical
Church)'를 추구한
다. 1988년 18명과
함께 시작한 교회는
현재 시카고 7개 지

역에서 13,000여 명이 모이는 멀티사이
트 교회로 성장했다. 저자는 시무하는 교
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다는 일
념으로 달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한 25년
간의 현장을 책에서 과감히 공개했다.



좋은 교사를 꿈꾸다

소종화 | IVP | 2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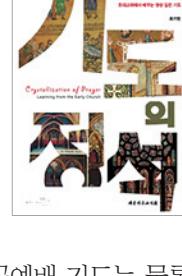
기독교적 수업을 향
한 한 교사의 평생
분투기. 저자는 다양
한 도전과 시도들을
거듭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 그리고 깨
달음을 풀어놓았다.
이를 통해 기독교 교
사들의 고민과 문제의 핵심을 짚고, 현장
에 적용 가능한 기독교적 수업의 실체를
제시한다. '기독 교사는 학교에서 그리스
도의 주 되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에 대한 대답.



기도의 정석

조기연 | 대한기독교서회 | 320쪽

부제 '초대교회로부터 배우는 영성 깊은
기도'처럼, 한국교회에 '좋은 기도의 텍
스트'들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저술됐다.
성경적·신학적 관점에서 초대교회
부터 현대교회까지, 공예배 기도는 물론
사적 기도까지 포함하는 '모범 기도문'들을
대거 수록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
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인
지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짧은 이야기, 긴 생각

이어령 | 시공미디어 | 292쪽

술한 화제를 모았던
'우리 시대의 지성'
이어령 박사의 방
송 '80초 생각 나누
기'에 나오는 순수한
글만을 모아, 단행본
형태로 출간했다. 짧
은 메시지지만 독
창적인 저자의 에세이는, 당시 많은 이들
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평생 함께한 것이
'국어'라 자부하는 저자는, 혼탁한 텍스트
가 넘쳐나는 시대에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는 글을 선사한다.



REVIEW

"기도의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의 함정

C. S. 루이스 스무 번째 시리즈 <세상의 마지막 밤>

홍성사 출간 C. S. 루이스 정본 클
래식 스무 번째 시리즈인 <세상의
마지막 밤>에는, 그가 곳곳에 기고
했던 에세이 일곱 편이 담겨 있다.

'기도의 효력', '믿음의 고집에 대
하여', '세상의 마지막 밤' 등 세 편의
작품은 기독교에 관한 글이며, 나머
지 네 편인 '썩은 백합', '스크루데이
프', '축배를 제안하다', '선한 일과 선
행', '종교와 우주 개발'에는 교육과
문화, 노동과 과학에 대한 비평적
내용이 담겨 있다. 글 곳곳에서 그
의 '전공'인 영문학자로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나 <고
통의 문제> 등 잘 알려진 많은 저술
에서 그러했듯 이 작품에서도 좀처럼
'신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무
신론자들이 의문을 갖거나 관심을
가진 주제들에 대해, 어떤 신학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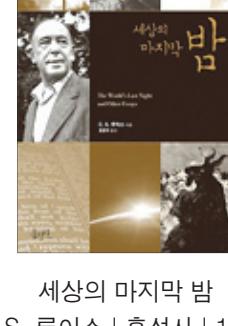
다 날카롭게 변증하고 있다.
이 같은 통찰력은 매일의 삶에서
사고하고 공부하고 느끼고 겪고 헤
쳐나온 일들이 그의 글감과 주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그는 사
람들이 별 생각 없이 자주 사용하
는 단어나 고정관념들에 반기를 들
고, 다시 바라보고 끝까지 추적하여
역설과 반전의 메시지를 아끌어낸
다. '완고한 무신론자'로서 할 수 있
는 한 끝까지 의심하다 '맥베트 회
심'에 다다랐기에 나오는 사유일지
도 모르겠다.

그는 '기도의 효력'에서 '기도의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의
함정과 그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기도한 대로 일이 이뤄질 수 있지만
애초 그렇게 될 일이었을 수 있고,
그 일이 명백한 기적이라 해도 기도
때문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
올 수도 없다. 기도가 어김없이 '성

공'을 거둔다 해도, 그것으로 기독
교 교리가 입증되지 않는다.

'기도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한 실
험'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그런 조
건에서 어떻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이 실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결국 우리가 과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적 증거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기도는 마법이나 명령, 기계
장치나 하나님께 드리는 조언이 아
닌 "요청"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인격
체들과 더없이 구체적인 인격자와
의 인격적 접촉이다. 기도의 성격은
무엇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니"라는 외침에서 잘 나타난다. 하
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다른 누
구도 아닌 그 사람이 가장 큰 어려
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전



세상의 마지막 밤
C. S. 루이스 | 홍성사 | 152쪽

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을 절대 혼자서 처리하
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친히,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느릿느
릿 어설플게 하게 하십니다. … 우
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자 또는 구

경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에 참가할 특권을 받은 자, 그
안에서 협력하여 '작은 삼지창을 휘
둘러야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고집에 대하여'에서는 그
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생각처럼 아무런 증거나 확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과물이냐
에 대해 따져본다.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존
데니 시 첫 행에서 제목을 따온 '세
상의 마지막 밤'에서는 재림(再臨)
또는 종말의 교리가 두려움이나 이
생의 삶에 대한 포기로 귀결되는 게
아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표출돼
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증하고 있
다. 나머지 네 작품에서도 루이스는
그만의 독특한 역설의 세계를 펼쳐
놓고 있다.

이대웅 기자

Gold Finger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골드팡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김독위원 역임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 한국아트페션 회장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올한올,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1세기형 전도법 : 패러다임과 방식을 전환하라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가 말하는 ‘넛지 전도’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

었었다.

이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책 〈넛지〉 열풍 때문이었는데, 책의 저자들은 ‘특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영단어 넛지(nudge)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행동경제학상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계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넛지 전도’를 제안한다. 그의 신간 〈넛지 전도〉의 부제는 ‘전도 불가능 시대의 전도법’.

스윗 박사가 말하는 ‘넛지 전도’는 사랑의 동기로 주어진 환경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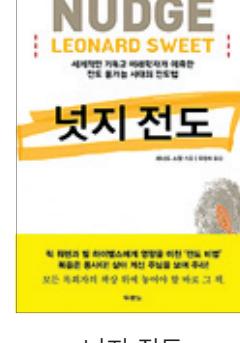
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 영혼에 양분을 공급하는 ‘씨 뿌리기’이다. 싹 나고 자리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넛지 전도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반드시 환영받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넛지 전도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다. 전하는 사람(그는 ‘넛지’라 부른다)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 행하는 넛지 전도는 최선이 아니다. 사람들을 결단으로 이끌기보다는 감동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결단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넛지 전도는 사람들을 강제로 앉히거나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밀어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비난하며 접근하는 방법이다.”

넛지 전도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초점을 두며, 죽음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더 염려 한다.

넛지 전도
레너드 스윗 | 두란노 | 340쪽

진국 사회에서, 여전히 넘치는 사랑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책이 제시하는 ‘방법적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2부에서 ‘당신의 오감으로 예수님을 넘지하라’고 권면한다.

“우리가 아는 복음 전도는 효과가 없었다. 때로는 너무 공격적이라 좀 자제시키고 싶었거나, 아니면 너무 절제되어서 명령을 내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동안의 전략들은 좋게 말하면 눈에 띠는 효과가 없었고, 나쁘게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 살아왔지만, 성경적인 출애굽이 아니었다.”

저자는 책에서 ‘관계 전도’, ‘삶으로 전달하는 복음’,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햇볕’ 등의 명제를 ‘포스트모던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해 놓았다. 프롤로그와 1부 1장만으로도 저자가 말하려는 바를 대충 파악할 수 있지만, 끝까지 읽는다면 성경을 토대로 한 그만의 독특한 시대적 통찰이나 스토리텔링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웅 기자

찬송가 65곡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은혜의 찬송 이야기

김남수 · 김동녘 | 아가페북스 | 280쪽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온다.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도 미래를 고민하던 그는 기술이라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고, 여려 군데를 전전한 끝에 가구 공장에서 흥미를 느낀다. 무엇보다 그를 측은히 여긴 주인 아저씨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다.

어느 주일 아침, 그 아저씨가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 예전 같으면 딱 잘라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따라갔다. 존 하얏트(John Hyatt) 목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소년의 마음을 두드렸다. 반항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가구 공장에서 사용하는 망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모했다.

어느 날 모트는 출근 도중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체험을 말해 주고

싶어졌고, 공장 뒤편 큰 바위에 올라가 소리쳤다.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은 모래라.’ 이 고백은 그대로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가 됐다.

그는 37년간 기술자로 일하다 55세의 늙은 나이에 목회자가 돼 21년 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다.

심지어 작사·작곡 미상(Anonymous)의 찬송에도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 있다. 아름다운 곡조가 돋보이는 찬송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제 484)’에는 아일랜드 선교사 성 패트릭(Saint Patrick)의 혼신이 담겨 있다.

영국 한 기독교 기관에서 나고 자란 패트릭은 16세 때 해적에게 불잡혀 아일랜드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한다. 6년 후 성인이 되자 탈출해 영국행 배에 오른 그는, 30세 되던 해 꿈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노예 생활을 했던 아일랜드로 다시 떠난다.

노예가 아니라 선교사로 아일랜드 땅을 밟은 패트릭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밖에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각종 미신이 난무하던 아일랜드에 2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10만여 명이 회심했다. 그가 죽고 300여 년 후인 8세기 무

렵, 한 무명 시인이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를 지었다. 이 찬송은 고대 아일랜드어로 쓰여 오랫동안 묻혀 있다. 1905년 영어로 번역되면서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이 시에 아일랜드 민요 ‘슬레이인(Slane)’의 청이한 선율을 붙여 불렀다.

책 〈은혜의 찬송 이야기〉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갈보리 산 위에’ 등 주옥 같은 찬송가 65곡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국의 딸이 소천했다는 편지를 받고 작곡한 장수철 교수의 밝은 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제 570)’, 시각장애인 토마스 헤이스팅스가 쓴 시각적 이미지가 돋보이는 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제 550)’ 등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아이러니’들도 실려 있다.

저자는 새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의 작곡자이자 〈은혜와 감동이 있는 숨겨진 찬송 이야기〉를 쓴 김남수 박사(침신대)와 그의 아들 김동녘 선생. 김남수 박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고, 사연이 있는 65곡을 선정했다”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자료를 수집했고, 설교집과 자서전 등을 통해 가사와 곡을 짓게 된 동기를 살폈으며, 생존 작가들은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제는 ‘삶으로 증명한 선진들의 고백’.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갑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CORSET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미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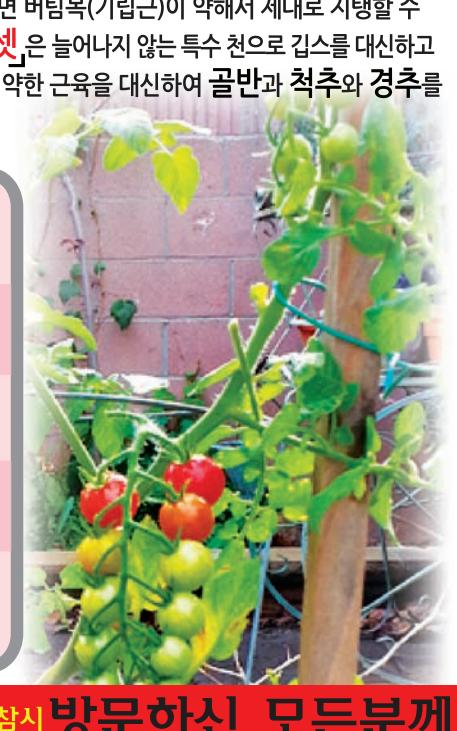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일본 “나가노 기적”의 주인공들, 비전트립 위해 LA 방문

예수비전선교회 유학생 선교사들, 학업과 사역 병행하며 복음의 짜 티워



예수비전선교회 비전트립 참가자들과 박문환 목사가 아가페선교훈련원에서 모임을 가졌다. 가운데 박문환 목사, 오른쪽 조성원 목사, 김귀아(나가노 대학 4), 이와사쿠 메구미(나가노 대학 4), 백유란(나가노 대학 4), 왼쪽 앞에서부터 다카하시 지혜(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재학), 사카모토 사오리(간사이 대학 경제학과 졸업, 일본어 강사)

최근 일본 나가노 대학 졸업생들과 일본인 한국 유학생들이 LA에 있는 아가페사역자훈련원을 찾았다. 각 대학을 졸업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예수비전선교회(대표 조성원 목사)의 비전트립을 위해서다. 예수비전선교회는 한국 청주에 본부를 두고 지역교회가 선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해 협력하는 초교파적 연합체이다. 이들은 단일민족으로는 세계 최대 미전도국, 선교사들이 꺼리는 땅,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관용 구가 따라붙는 일본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가 학교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관계전도를 하기 위해서다. 공부를 하면서 일본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교회를 돋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일본어를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다. 선교사로 갔지만 동시에 학생으로 간 것이니 공부를 잘 못하면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물어왔다. 너는 다른 친구들과 다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또 왜 이렇게 밝은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나는 크리스천인데...’라며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줬다. 때로는 친구들의 걸모습과 속내가 달라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번 비전트립에 참여한 백유란 자매의 말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CTS에서 8.15 특집 ‘나가노의 기적’ 이란 제목으로 방송되었으며 일본 NHK를 통해서 몇 번 방영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조성원 목사는, 예수비전선교회에서 파송한 유학생선교사들이 이뤄낸 ‘나가노의 기

적’을 조용한 부흥운동이라 불렀다. “호슈 지방에 위치한 나가노현은 일본에 세워진 첫 번째 개신교 교회인 요코하마 해안교회(1871년 설립)에 이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100여 년 전 우치무라 간조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부흥사경회를 열며 학교를 세우고 활발히 활동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그 운동들은 사장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가노에 유학생 선교사를 보내셔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보수적인 성향의 지역이라 유학생이 오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유학생의 90퍼센트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유수한 대학원에 진학해 모범을 보이니 차츰 우호적이 됐다. 시의원들이 이 소문을 듣고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고 NHK 뉴스에도 몇 번 등장했다.”

예수비전선교회는 전문인 사역자로 팀을 구성해 일본교회에 파송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가기도 하고 대학 재학 중 휴학하고 가서 섬기고 돌아오거나 일본신학교에 진학해 일본교회 목회자가 되어 사역하는 경우도 있다. 후쿠오카, 구마모토, 고베, 도쿄, 나가노 등 일본 전역에 70여 명을 파송했고 현재는 40여 명 정도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단체가 파송한 유학생 선교사들은 한국의 미션스쿨과 일본교회의 젊은이 사역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일본대학에 진학해 학부 4년을 다니거나 박사 과정 까지 10년 간 일본교회를 섬기며 일본인 친구들을 전도한다. 일본의 나가노 대학, 오사카 산업대학, 구마모토에 있는 소조대학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나가노 대학에 유학생이 가서 사역한 지는 올해로 6년이 됐

다. 졸업생들은 치바대학원 등 일본의 유수한 대학원에 진학했다.

조성원 목사는 “자신의 전문직을 가진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려 한다.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에 능숙한 교수, 연구원을 배출해 이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 된다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수비전선교회가 일본선교에 협력하게 된 것은 2004년 3월 후쿠오카복음선교센터(대표 구원준 선교사) 현당식에 참석하면서부터다. 그 해 여름 56명의 단기선교팀 파송을 시작한 이래 2006년부터 매해 중·장기 학생 및 전문인 선교사를 일본의 여러 지역교회에 파송했다.

“현재 일본에 있는 8천개의 교회 가운데 1천 개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다. 일본에 신학교가 70여개가 있으며 그 중 문부성 인가를 받은 학교는 30개 정도다. 일본 신학교들은 진학률이 낮아 목회자가 부족하다. 학생이 없어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교회가 한국에 학생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에 약 150년 간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와 재정 및 인적 지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개신교와 가톨릭교인수를 모두 합쳐도 일본 인구 1억2천7백만 명의 1퍼센트도 안 된다. 2010년 일본크리스천신문 자료

에 의하면, 평균 예배 인원은 27명이며 교인 수 1000명이 넘는 교회가 3개, 400명이 넘는 교회가 20개다. 거기에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만 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는 간판을 내리게 된다.”

“CCC 선교사가 파송된 곳 중 유일하게 선교가 안 된 나라가 일본이다. 90년대 초반에 CCC 국제본부

에서 일본CCC를 폐쇄시키려 했으

나 구원준 선교사가 파송돼 와세다 대학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이어서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에 선교센터를 세웠다. 예수비전선교회는 그와 협력해 일본선교와 일본교회의 자립을 돋고 있다.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며 선교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조성원 목사는 이번 비전 트립에 참가한 유학생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비전선교회가 나가노 대학을 방문해 나가노 대학 학장, 교수들과 교류 회의를 하던 중 나가노 대학 교수가 두 명의 유학생 선교사 김귀아, 백유란 자매에게 나가노 대학에 와서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두 자매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유창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니 다들 놀라워했다.”

“김귀아 자매는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다. 일본이 복지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진정한 복지라는 것은 사람을 온전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부족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

“자신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했고 따라서 기독교와 사회복지, 종교와 복지를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미션스쿨이 아니기에 이런 애

기를 꺼내기 어려운데 한국 목사님

들도 상당히 놀라고 일본 교수들도 감동했다.”

“유학생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청년부를 부흥시켜 2부 예배가 생겼다. 일본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 학사에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일본 학생, 중국 학생을 한 주간씩 초청했는데 2~3백 명씩 왔다. 그 자리를 통해 자연스레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행사를 교회로 옮겨서 치른다. 그 행사에 참석

한 친구들이 교회 분위기와 문화가

좋아 교회를 다시 찾아오니 일본 목

사님들이 놀란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선교의 걸림돌이 산재한다. 와(和)문화와 토착종교, 조직문화가 그것이다.

“일본의 문화를 와 문화라고 한

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 자기화 한

다. 일본에 선교사가 가서 일본화되

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또 일본은

애니미즘, 토테미즘이 흔하다. 동네

마다 골목마다 조상신을 섬기는 신

사가 있고 잡신을 많이 섬겨 영적으로

훈탁하다. 영적인 것이 문화에도

영향을 줘 일본문화에는 이상하고

괴기스럽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

는 게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원 목사는 아가페사역자훈련원과 협력해 결심했다.

“일본청년들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데려와서 세계를 보여줘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해서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미국교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가페사역자훈련원의 시스템과 취지가 좋아 협력관계를 맺게 됐다. 일본 선교의 비전이 있는 청년들을 아가페사역자훈련원에 데려와 훈련해 일본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인 사역자로 길러낼 것이다.”

조성원 목사는 이번 비전 트립에 참가한 유학생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비전선교회가 나가노 대학을 방문해 나가노 대학 학장, 교수들과 교류 회의를 하던 중 나가노 대학 교수가 두 명의 유학생 선교사 김귀아, 백유란 자매에게 나가노 대학에 와서 좋았던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두 자매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유창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니 다들 놀라워했다.”

“김귀아 자매는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했다. 일본이 복지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진정한 복지라는 것은 사람을 온전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부족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

“자신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했고 따라서 기독교와 사회복지, 종교와 복지를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미션스쿨이 아니기에 이런 애

기를 꺼내기 어려운데 한국 목사님

들도 상당히 놀라고 일본 교수들도

감동했다.”

“유학생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청년부를 부흥시켜 2부 예배가 생겼다. 일본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 학사에서 크리스마스 기간에 일본 학생, 중국 학생을 한 주간씩 초청했는데 2~3백 명씩 왔다. 그 자리를 통해 자연스레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행사를 교회로 옮겨서 치른다. 그 행사에 참석

한 친구들이 교회 분위기와 문화가

좋아 교회를 다시 찾아오니 일본 목

사님들이 놀란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선교의 걸림돌이 산재한다. 와(和)문화와 토착종교, 조직문화가 그것이다.

“일본의 문화를 와 문화라고 한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 자기화 한다. 일본에 선교사가 가서 일본화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또 일본은

애니미즘, 토테미즘이 흔하다. 동네

마다 골목마다 조상신을 섬기는 신

사가 있고 잡신을 많이 섬겨 영적으로

훈탁하다. 영적인 것이 문화에도

영향을 줘 일본문화에는 이상하고

괴기스럽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

한 주디 기자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프로젝트 <올투게더 All-together>

〈올투게더 All-together〉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동고동락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컴퓨터/한글/스페인어 무료교육

교육일시 10월 11일-12월 24일 / 등록기간 10월 10일까지

✓ 등록비, 교육비, 교재비 일체 무료

한인교회 천로장로교회와 라틴교회 Iglesia Gracia교회가 후원

교/육/과/목

컴퓨터/인터넷

- 모집정원 10명
- 오후 2:00-3:30 (토)

한글

- 모집정원 7명
- 오후 3:30-5:00 (토)

스페인어

- 모집정원 7명
- 오후 3:30-5:00 (토)

한글+스페인어

- 모집정원 7명
- 오후 5:00-6:30 (토)

모/집/대/상

LA와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 고아, 이혼가정 자녀, 홀사모, 싱글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우선 혜택

* 신청자에 한해 간단한 전화 상담을 갖고, 이후 수강 가능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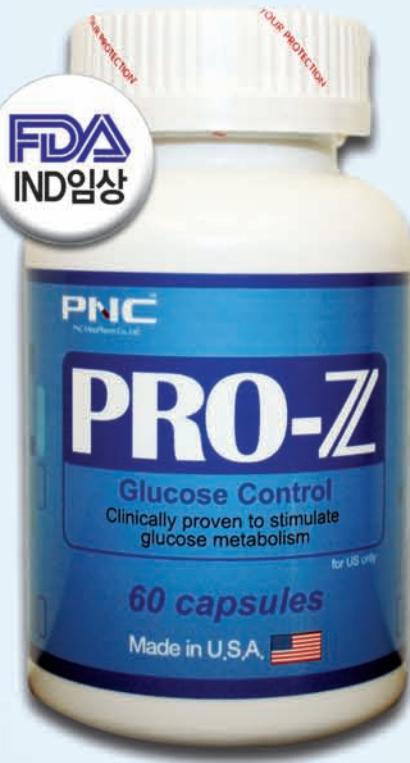
213-509-3779

www.pilgrimla.org / email: shnho3927@gmail.com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06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 한국 30만병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고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키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
효능이란?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고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시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맡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빼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빠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일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사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열반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전립선이 심해서 회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쟁여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